

주일 예배 순서

- 성령강림 후 제8주 -

- 조용한 기도(Silent Prayer) 시 98:1-4 다함께
- 찬 송(Opening Hymn) 14장(새 26장) 다함께
- 교독문(Responsive Reading) 18번(새 30번) 다함께
- 공동기도(Prayer) 다함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존하신 주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어 자녀 삼으시고 능력으로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보이는 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또 그것이 진짜인 양 행세하지만, 저희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믿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의 통치 아래 있어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영적으로 강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몸 된 교회에 연결된 성도들의 삶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비록 몸은 이 땅을 딛고 있지만,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맛보며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저희에게 주어진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주의 백성들을 통해 사랑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삶으로 세상 가운데 밝히 비취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며 구주와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사도신경(Apostles Creed) 다함께
- 성경봉독(Scripture) 요한일서 4:16-18 인도자
- 말씀증언(Sermon) 이송원 목사

우리가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

- 봉 헌(offering) 357장(새 322장) 다함께
- 환영과 소식(Welcome/Announcements) 인도자
- 찬 송(Hymn) 410장(새 315장) 다함께
- 축도(Benediction) 이송원 목사

교회 소식

1.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 애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2. 오늘 친교 후 소망속 모임이 있습니다.
 - 믿음속장 : 이춘희,
 - 속원 : 기길숙, 김희원/진판자 박준영/윤병옥, 신숙경, 심금자, 이정숙, 이화자, 임숙재, 전영숙, 최은진, 허영희, 홍혜영
3. 말씀 묵상집 8월호가 나왔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한 부씩 가지길 바랍니다.

<기도제목>

- 세계 각국에서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
- 미 연합감리교회(UMC)가 회개와 순종을 통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 담임목사님이 성령충만한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 한마당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며, 기도와 교제와 예배를 통해 믿음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로 함께 세워지도록.
- 영어권 사역이 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 치유와 회복을 위해
(박현숙성도님, 허영희성도님 시어머님, 캄보디아 조동천선교사님)

<이 달의 속회 적용점>

고린도전서 13:1-7을 읽고 묵상하여 내 마음에 깊이 새겨드립니다. 그리고 일상의 삶 속에서 4-7절의 말씀을 필요한 때, 필요한 상황에 적용함으로 사랑을 실천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결과와 반응이 나왔는지, 또한 이 경험을 통해 무엇을 알고 깨닫게 되었는지 다음 속회 모임 때 나눕시다.

〈말씀묵상〉 요한일서 4:16-18

16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17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 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18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입니까?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질 때 어떤 결과로 이어집니까? (16-17절) 나는 지금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 사랑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며 왜 그렇습니까? (18절) 두려움에 사로잡힌 경험이 있다면 언제, 왜 그랬습니까?

❖ 우리의 신앙은 항상 인격과 존재로, 삶의 열매로 그 실체를 여실히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이려 해도 결국에는 숨길 수 없는 것은 우리 내면에 있는 것이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지만, 그중에 가장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이 있는데 바로 두려움입니다. 인간이 연약한 존재임을 보여주는 본성이 두려움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죄인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입니다. 죄인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형벌이라는 책임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흉악한 사람일지라도 죽음 악에서 두려워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두려움은 결국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영적인 상태 가운데 머물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잣대가 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두려워하는 현상을 자주 보게 됩니다. 많은 성도가 영적인 불안감과 초조함에 빠져 있습니다. 자신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는 임재의식이 없습니다. 성령 안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인한 평강과 안식 대신, 불확신한 미래를 스스로 준비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대책에는 열심이지만 사후 대책에는 전혀 관심도 없는 교인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마치 이 땅에서 영생이라도 할 듯이 세상에 집착하며 땅의 것을 통해 안정감을 누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지에 대해서는 도통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시대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담대하고 당당한 성도들 찾아보기가 힘든 때가 되어 버렸습니다. 소심하고 위축되어 항상 염려하고 불안해할 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사랑이라는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린 결과가 자아 집착이라는 영적 질병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나에게 두려움이 있다면 무엇 때문입니까? 나는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 거하고, 사랑함으로 담대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교회창립 1981년 10월 24일

한 마당 연합 감리 교회



담임목사(Pastor) 이송원 목사(Rev. Songwon Lee)
반 주 자(Pianist) 기길숙 성도

Han Madang United Methodist Church

7800 West Pleasant Valley Road, Parma, OH 44130

☎ 교회: (440)845-1728

E-mail : hanmadang@sbcglobal.net

웹사이트 <http://www.hanmadang.org>